

사상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하락 최수연 “‘뉴클라우드’ 조직개편”

(네이버 대표)

네이버 3분기 컨퍼런스 콜

매출 2조 573억, 영업이익 3302억
쇼핑·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세 꺾여
최대표 “광고 솔루션 H 이후 적용”

네이버가 국내 구축한 쇼핑 검색 광고 솔루션을 내년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에 적용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클라우드 조직도 개편한다. 그동안 여러 사업부서에 걸쳐 흔재돼 왔던 인공지능(AI) 및 기업간 거래(B2B) 사업 조직들을 네이버 클라우드 중심 ‘뉴클라우드’ 산하로 통합할 계획이다. 3분기 실적은 웹툰 등 콘텐츠 사업 급성장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가 줄었다. 순이익은 28.3% 감소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7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쇼핑 검색 광고를 야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라이브 테스트를 진행하

고 있으며 내년부터 쇼핑 광고의 야후 검색 광고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2B(기업간거래) 관점에서 네이버 매출을 증장기적으로 거둘 수 있고, 검색광고·스마트스토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야후의 기술 제공자로서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AI 및 B2B 사업 조직들인 웨스모바일, 클로바CIC, 파파고, 웨일 등을 뉴클라우드 산하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부처에 분산돼 있던 각 조직의 기술 역량을 집결하고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영역까지 더 최적화되고 강화된 통합적인 사업 구조를 완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클라우드 기반 기술 강화는 네이버의 일본향 매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네이버웍스가 일본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대표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듯이 Z홀딩스, 소프트뱅크와 협업 기회도 모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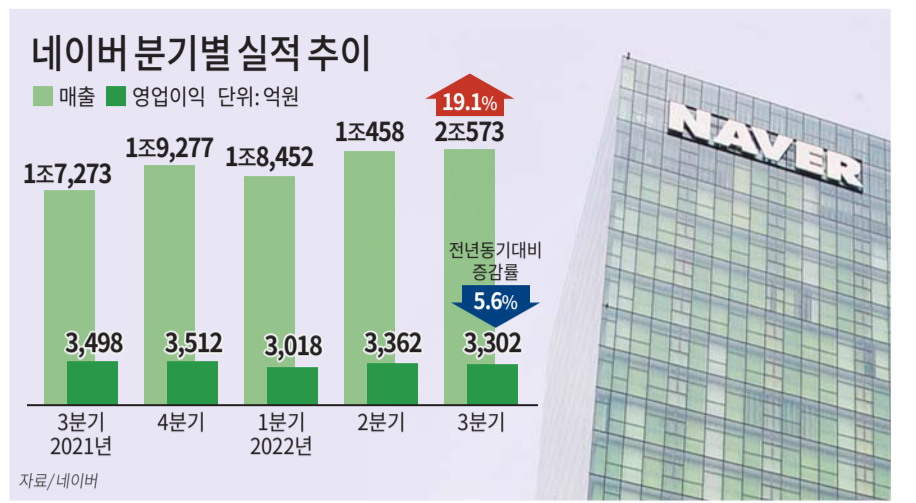
며 새로 출범하는 뉴 클라우드의 일본 내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전분기 대비 0.6% 증가한 2조 57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33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증가율은 그동안 20% 중후반대를 기록해왔지만 이번에 20% 밑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분기 만에 역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광고 시장 둔화의 영향에도 매출은 안정적인 실적을 냈지만, 쇼핑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며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것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서치플랫폼(네이버 검색광고) 8962억원 ▲커머스 4583억원 ▲핀테크 2962억원 ▲콘텐츠 3119억원 ▲클라우드 및 기타 948억원을 기록했다.

서치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했지만,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8962억원을 기록했다. 검색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견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커머스는 커머스 광고, 브랜드스토어, 멤버십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4%, 전분기 대비 4.3% 성장한 4583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1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전분기 대비 0.2% 성장한 2962억원을 기록했다. 또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전분기 대비 3.3% 성장한 1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는 전년 동기 대비 77.3%, 전분기 대비 3.9% 증가한 311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글로벌 웹툰 통합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전분기 대비 11.9% 성장한 4570억원을 기록했

다. 클라우드 및 기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전분기 대비 9.6% 감소한 948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최근 인수한 미국 1위 C2C 커머스 플랫폼업체인 포쉬마크에 대해 “네이버 재표지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포쉬마크 인수에는 유보 현금 5억 달러(7000억원)를 일부 활용했다”면서 “인수에 따라 불어난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향후 영업현금을 창출하고 일부 보유 투자 자산들을 유동화할 예정”이라며 “차입금 비율은 2년 내 현 수준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는 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투자 및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시너지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주요 계열사 CEO 전면 교체... 모빌리티그룹 ‘이규호·전철원’ 각자대표

코오롱그룹 정기 임원인사

대규모 인사로 미래 성장전략 가속
신임 상무보 22명 중 16명 40대
“기업은 위기속에 기회보고 나아가야”

코오롱그룹이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경영 위기에 대응한다.

코오롱은 7일 주력 계열사 CEO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등 2023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L4면>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미래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

우선 내년 1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출범시키면서 코오롱글로벌 자동차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이규호 대표이사 사장

부문 이규호 부사장과 BMW본부장 전철원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코오롱글로벌에는 코오롱플라스틱 방민수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

정, 코오롱플라스틱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허성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한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강이구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플라스틱과 코오롱글로벌 등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영범 사장이 대표이사에 낙점됐다.

코오롱은 제조 핵심 3사 CEO를 모두 교체하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혁신, 미래 신사업 추진과 발굴 등을 꾀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모빌리티 이규호 대표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미래성장전략 수립 및 신사업 발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구축, 재무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철원 대표는 기존 사업 중심의 세일즈 및 A/S네트워크 관리 등 신설법인의 영업 기반을 다진다. 이에 2025년 까지 매출 3조 6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내년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은 위기 속에 기회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전략 실천을 주도할 인재를 앞세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코오롱은 신임 상무보 22명 중 16명을 40대로 선임했다.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

도록 하는 조치다.

여성 인제도 중용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에서 ESG를 총괄하며 코오롱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남성복 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지은 상무보도 상무로 승진했다.

또 골프사업부의 김수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상무보로 발탁됐고, 코오롱인더스트리 미래연구소장인 조은정 상무보가 상무로 승진했다.

MOD에서 호텔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허진영 이사가 상무보로 승진하는 등 5명의 여성 임원의 승진이 이뤄져 여성인력 육성 기조를 이어갔다.

/김재용 기자 juk@

KT-대상웰라이프, 베트남 의료 DX 맞손

원격의료 등 사업확대 협력

KT가 대상웰라이프와 베트남 의료 디지털전환(DX) 추진에 손을 잡는다.

비대면 암환자 케어 서비스 내 환자 식이코칭 등 의료 DX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국내외 파트너 확대로 식이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대상웰라이프와 베트남 비대면 암환자 케어 서비스 등 의료 DX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베트남암환자대상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료기관을 통

한 서비스 검증 ▲베트남 의료 DX사업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플랫폼을 활용해 암 수술 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비대면 암환자 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진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자가관리 코칭 ▲환자용 식품 제공 및 식이 코칭 ▲케어 코디네이터의 원격 상담을 지원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이 서비스를 위해 환자를 위한 영양 섭취 가이드와 학술 및 임상시험 자료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환자에게 환자용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KT, 양자암호통신 채널 일원화 장비 개발

광 신호간 간섭 억제... 잡음비 높여

KT가 양자암호통신에서 양자 채널을 일원화하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송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양자암호키에 기반을 둔 데이터 보안 기술이다. 양자암호통신 체계를 구현하려면, 고객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회선과 양자 신호를 전송하는 회선 등 총 2회선의 광케이블을 한 쌍으로 구축해야 했다.

KT가 개발한 양자 채널 일원화 장비는 광 신호 간 간섭을 억제해 신호대 잡음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호대 잡음비가 높을수록 광 신호 간 간섭이 적



KT 융합기술원 연구원들이 양자 채널 일원화 장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KT

어서 데이터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데이터의 송수신과 양자암호키의 생성과 분배를 광케이블 1회선 만으로도 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LGU+ 웹기반 화상회의 솔루션 개발

LG유플러스는 웹 기반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MeetU(미트유)’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MeetU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 모바일, 태블릿에서 웹브라우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회의 참여자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처럼 협업할 수 있도록 ▲고품질 ▲사용자 감성 ▲협업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MeetU는 고품질의 화상회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효율 영상압축 코덱(VP9)과 스마트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고, 회의도 중 연결된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더라도 음성 대화가 끊김없이 유지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했다. /채윤정 기자